

# 전주 복지정책 이끌 컨트롤타워 '전주사람' 뜬다

### 전주시 복지재단 창립총회...도에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복지 수요 능동 대처 '온전한 사람의 도시' 만들기 목표

전주형 복지정책을 이끌어갈 컨트롤타워인 전주 복지재단 '전주사람'이 출범한다.

전주시는 최근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고 온 시민의 행복이 중심 되는 온전한 사람의 도시 전주 만들기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전주사람은 전주시가 점차 다양화되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다.

시는 설립취지문 채택과 이사장·임원선출, 정관·제규정 심의 등으로 이뤄진 지난 16일 창립총회에 이어 전북도에 복지재단 설립허가를 신청한 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재단 임원들은 전주를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사람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

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설립 취지문을 채택했다.

앞으로 전주형 복지 사각지대 지원체계 및 민·관·상시 협력체계 마련, 복지정책 개발 연구 등을 목표로 한 사업들을 운영하게 된다.

시는 재단설립등기가 마무리 되는 대로 사무국 등 조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재단에서 실행할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 속도감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2016년부터 복지 현장 전문가들과 토론회와 학술 용역 등을 통해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해왔으며, 전북도와 재단 설립을 위한 사전협의의 거쳐왔다.

지난해에는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재단 설립·운영을 위한 5억원의 출연금도 확보했다.



지난 15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복지재단 '전주사람' 창립총회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복지재단 전주사람은 모든 시민이 복지정책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총체적 복지안정망 구축에 앞장서게 될 것"이라며 "시민 개개인

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도시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해결하고 돌보는 나눔과 공생의 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강진 읍넛골농촌유학센터 '농촌유학지원대상' 선정

강진 읍넛골 농촌유학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2019 농촌유학 지원대상'에 선정돼 2400만원의 사업비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농촌유학센터는 폐교 위기에 놓인 농촌학교를 살리고 입시경쟁에 내몰린 도시학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교육적 대안 및 도·농간 교류의 활성화 차원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전국 최초 농촌유학 모델을 추진중인 읍넛면은 입학생이 없어 폐교 위기에 놓였던 읍넛초등학교(사진)를 살리고자 교사 및 마을주민들이 발 벗고 나섰다. 이 결과 학생 수가 47명으로 늘어나 지역학교 및 농촌 활성화에 성공한 학교로 자리매김했다.

강진군은 매월 25만원의 유학생 체류비도 지급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 군산시-군산의료원, 건강한 군산 만들기 '손잡았다'

군산시가 건강한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 군산의료원과 '맞손'을 잡았다.

군산시 보건소는 최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라북도 군산의료원과 위탁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시는 지난 2010년 10월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중독자의 조기 발견과 상담 치료 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읍주 등의 다양한 중독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

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절주를 위한 오행시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읍주와 게임 등 중독 문제가 없는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전형태 군산시 보건소장은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 및 중독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자원을 아끼지 않고 활발하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독관련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063-464-0061)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전화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고창군, 농촌주택개량 금융지원서비스

### 노후·불량주택 신축펀 최대 2억원까지 금리 지원

고창군은 농촌주택개량사업 금융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금융서비스는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보수해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자, 귀농·귀촌 예정자다.

군은 신축 최대 2억원, 증축 최대 1억원에 대한 금리를 지원하며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된다.

또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된다.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일 경우 금융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 100㎡이하일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5년)가 면제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2019년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희망하는 세대주는 건물 신축 토지 확보, 건축허가 가능 여부 등을 확인 해 오는 2019년 1월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 정읍시, '자암 박승준 기념관' 건립사업 박차

정읍시는 '자암 박승준 기념관' 건립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념관 설립은 지난 7월에 첫 삽을 뜨고 오는 2019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는 기념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중 한분인 자암 박승준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기념관(조감도)을 세우고 있다.

또 기념관을 통해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 애족 정신을 후손들에게 계승하기 위한 교육장소로 활용할 방침이다.

박 선생의 고택지가 있는 산외면 평사리 일대에 조성 될 기념관은 6045㎡ 부지 내에 170㎡ 규모로 2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한옥형 기념관으로 건립하게 된다.

시는 스토리텔링형(이야기하다) 전시물과 오감만족 체험형 전시물 등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설 위주로 구성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신안군, 남해화학과 시금치·대파 전용비료개발 협약

신안군은 남해화학(주)과 신안군 대표 명품농산물인 시금치·대파 전용비료 개발을 위해 최근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안 시금치·대파의 토양 염류장애 해소와 품질향상을 위해 군에서는 실증시험 재배포장을 설치 운영한다.

또 남해화학은 향후 2년 동안 토양 적응성과 작물의 생육특성을 연구 분석해 최적의 시금치·대파 전용비료를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안에서 생산되는 시금치와 대파는 게르마늄이 풍부한 토양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맛과 저장성이 뛰어나다.

신안군은 작물별 재배환경에 따른 전용비료가 개발될 경우 품질과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 익산시, 쓰레기종량제 봉투값 20 l 기준 540원으로 ↓

익산지역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이 20 l 기준 540원으로 인하된다.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이 20 l 기준 현재 800원에서 540원으로 조정된다.

조정되는 쓰레기 봉투가격은 현재 가격의 67.5% 수준으로 지난 2016년도 판매가격과 동일한 수준이다.

시는 또 소규모 가족 증가에 맞춰 최소 용량을 1 l로 낮춰 보급한다.

현재 최소용량은 3 l이지만 2019년 1월부터는 1 l와 2 l 용량도 추가된다.

출산장려를 위한 영유아보육가구 지원도 확대한다. 만 2세 이하의 영아보육가구는 매월 20 l 쓰레기 봉투 3장씩 총 60 l의 봉투가 지원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는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의회의와 공감대 형성, 조례 개정과 물가 심의 조정회의 등을 거쳤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공유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6000만원, 평당 20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